

DIABLO[®]

IMMORTAL[™]

본능

라이언 퀸
단편 소설

이야기

라이언 쿤

그림

정상수

편집

클로이 프라보니

지식 자문

매디 버킹엄, 이안 란다-비버스

크리에이티브 자문

맥 스미스, 세바스찬 스테피엔

제작

브리엔 메시나, 카를로스 렌타

디자인

코리 피터슈미트

Special Thanks

오티스 블룸, 저스틴 다이, 스콧 시코프,
메튜 버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성역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디아블로 이모탈 팀

BLIZZARD
ENTERTAINMENT

© 2023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모든 권리 보유.

본능

왕의 항구 동부의 황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 알로디는 도시가 황량해져 가는 것이 익숙했다. 익숙함은 괴로움을 덜어줬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끝없이 경사진 비좁은 길을 걸었다. 길 양옆에는 더 작을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작게 나뉘어진 낮고 젖은 판자집들이 있었다. 그곳은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였다.

윌스 거리의 집들은 다른 모든 곳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알로디는 바다를 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바다 내음을 맡을 수는 있었다. 부두에서는 비명과 저주 소리가 들려왔다. 대부분의 모퉁이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쌍한 자들이 마지막 재갈을 물려지고 있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왕의 항구 빈민가에 한 가지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사촌을 따라서 간격을 유지하며

곰팡이가 핀 자갈을 걸었다.

“서둘러.” 보이스가 속도를 높이며, 그녀를 돌아 보지도 않고 증명거렸다. 그는 여전히 목적지를 말해 주지 않고 있었다.

보이스는 나이가 더 많았고, 수척했으며, 혈색이 짙었다. 그의 자랑스러운 코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얼굴에서 존재감을 자랑했다. 그의 코트는 커다란 검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알로디는 그녀의 곱고 아름다운 머리를 질끈 묶었다. 그녀는 엉망으로 헝클어진 장갑을 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추심하기 위한 복장이었다.

왕의 항구에서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 중에서 사람들에게 추심하는 일은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정리는 고된 작업이었다. 마부들에게 배달을 준비시키고, 어떤 상자를 열어야 하고 어떤 상자를 봉인해야 하는지를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잡히면 감시관에게 뇌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 알로디는 모든 일을 섬세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하루가 끝날 때,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꽤 짭짤했다. 그녀는 배송 목록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녀 본인 일이 일찍 끝나면 바로 빠질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도 지루함을 날려버릴 만한 특별한 밤이 있었다. 올해 초, 그녀와 린은 술에 취한 채 가족의 마차 중 한 대의 가족 후드에 소의 피로 “구호품”이라고 쓴 적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마차는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없었다. 알로디는 보이스 가문의 대모인 노모가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저주를 퍼부으며 청소부에게 그것을 씻기라고 지시하는 상상을 하며 몇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그녀의 공범 린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알로디는 린과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무엇이 둘을 계속 가깝게 지내도록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린이 시인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린은 항상 그녀의 가게에서 밤낮없이 일했지만, 두 사람을 위한 고급 비단은 항상 준비해 두었다. 알로디는 그녀를 부러워했다. 린은 적어도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린은 누구에게도 추심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최악의 사람들에게만 추심했어. 거머리들. 그들은 처음에는 빛을 지고 그 다음엔 돈을 벌리고 그 다음엔 값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알로디는 항상 거머리들과 협상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사촌들이 과하게 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년들이 발을 구르며 난장판을 만드는 동안 알로디는 날짜와 액수를 정하고 무서워하는 거머리들을 달래줘야 했다. 거머리들이

다치기 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 비록 그 녀석들 대부분은 다치도록 내버려 둘만 하더라도.

그 모든 관행과 그 필요성은 수치스러웠다. 왜 사람들은 그냥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

보이스가 앞장서서 노가든으로 내려갔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미로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가며 걸었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고 해도, 알로디는 창을 뒤덮은 먼지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럽게 방치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비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잃고 매스꺼움을 느꼈다. 그녀가 보이스에게 물었다. “이번 거머리는 누구야?”

보이스는 여느 때처럼 그녀의 질문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통이를 돌아 사라졌다.

모통이를 돌아서니, 그녀는 사촌이 코트 밑에 무언가를 가지고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이스는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주저앉은 갈색 연립 주먹 앞에 멈춰 섰고, 그 집은—

알로디는 저녁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수천 가지 짜증나는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녀의 심장과 온 내장이 자갈밭에 내려앉았다. 공포가 그녀의 손가락을 굳게 만들었다.

린의 가게 간판이 저녁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다.

보이스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빨은 지저분했다.

“힘내, 꼬마 요정.” 그가 말했다. “본능에 충실해. 금방 끝날거야.”

그는 돌아서서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거야?” 알로디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에게 소리질렀다.

알로디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침이 튀고, 목과 이마에는 핏줄이 튀어나와 있고, 얼굴은 빨갱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정말 징그러운 모습일

그들은 알로디가 모든 작업을 혼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그 말을 이용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냥꾼의 본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살인자의 본능 말이다.

것이다.

그들은 린을 가게 의자에 묶고, 그 뒤로 손을 묶은 다음 의자를 넘어뜨려 그녀를 바닥에 눌렀다. 단지 그녀를 겁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게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뒷벽에는 양털과 토끼털 더미가 베를 둘러싸고 있었다. 가족은 고르지 않은 가닥으로 늘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덩어리진 염료 병이 있고, 바닥 곳곳에는 짚이 널려있었다. 천장은 낮게 축 처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위층 세입자들이 떨어질 것 같았다.

어질러진 물건들의 맞은편 열린 옷장에는 고운 비단이 깔끔하게 접혀있었다.

알로디는 비단을 가리켰다. 가족이 배달해야 할 물건 중 하나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줬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제때 돈을 지불하는 것뿐이었지.”

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사과 같았는데, 우는 모습을 보니 얼굴이 더 작아 보였다. 파란색과 금색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크라바트가 목에 감겨 있었다. 그녀는 무두질장이에게서 훔친 장미 가루와 왁스로 짙은 적갈색 머리를 손질해 두었다. 알로디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자주 보곤 했기 때문이다.

린의 완전히 애원하고 있었다. 좋아. 그 말은 그녀가 순종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알로디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의자에 손을 얹었다. “한 달 안에 200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보이스가 끼어들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도 마.” 그는 천박했고, 딱 그런 목소리였다.

즉시, 린의 얼굴이 반항적으로 변했다. 바위 일곱 개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최대한 반항적이었다.

“코 막고 죽어버려.” 린이 쓰아부쳤다. “너네 엄마의 고양이도 너네 엄마의 눈을 먹고, 악마가 그 고양이를 먹어버렸으면 좋겠네.”

린은 천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투는 거칠었다. 그녀의 말이 맞기도 했다.

보이스의 어머니는 끔찍했다.

보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코트 속에서 쌍두 망치를 꺼냈다. 그는 망치를 염료 병에 넣고 유리와 코발트 색 염료를 가계 전체에 뿌려 댔다. 린은 비명을 질렀다. 알로디는 유리가 날아갈 때 눈을 가리고, 멈추면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때 보이스가 린의 입에 헝겊을 쑤셔 넣고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망치를 들고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만해.” 알로디는 그가 또 추악한 짓을 하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하면 뭘 해줄 건데?” 보이스가 망치를 흔들며 말했다. 그는 마치 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처럼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알로디는 린의 얼굴을 훑듯 쳐다보았다. 입은 벌어지고 눈은 크게 뜨고 눈썹을 치켜뜨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녀가 그냥 갇지는 않을 거야. 일이 끝나면 추가로 100골드를 더 줄 거야. 수고비로 말이지. 한 달 안에. 그렇지, 란?”

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가 진척이 보였다. 힘을 한번 과시하고...

보이스는 알로디 쪽으로 신중하게 걸어갔다. 그는 망치를 짝 움켜쥐었다.

“그녀는 아직 덜 깨달은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가 침묵 후에 말했다. “그건 *과분한 관용*이야.”

알로디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그녀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했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린의 2주 후에 돈을 지불할 거야. 내가 가지러 갈게.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배송 목록 관리를 맡아 할게.” 양보. 때로는 양보가 최선일 때도 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정말 본능에 충실하지 못해.” 보이스가 망치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는 거의 슬픈듯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본능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이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들은 알로디가 모든 작업을 혼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그 말을 이용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냥꾼의 본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살인자의 본능 말이다.

하지만 알로디는 분명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증명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생각에는, 그녀가 우리 밥벌이를 빼앗는다면, 우리도 그녀의 밥벌이를 빼앗아야 해. 그게 맞지.” 보이스는 몸을 돌려 망치를 든 채 의자 밑에 웅크린

린을 내려다보았다.

린은 뒤로 몸을 움츠리고 재갈 주위로 신음을 냈다.

“제발.” 알로디가 말했다.

보이스는 의자를 바로잡으려 의자를 붙잡았다.

알로디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본능이 지배한 것이었다.

“멍청아.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동전을 꺼내? 그녀는...”

그는 망치를 내리쳤다, 강하게.

린은 의자 밑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집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이었다. 재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었다.

보이스가 의자를 끌어 올려 손목을 풀어주자, 린은 벌벌 떨면서 침을 흘렸다. 린의 오른쪽 손가락 마디는 짓이겨져 움푹 들어가 있었고, 손톱 밑, 찢어진 피부의 틈 사이로 피가 사방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 팔로 다른 팔을 잡고 앞뒤로 몸을 흔들었다.

알로디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보이스를 응시했다... 그는 약간 땀을 흘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제 우린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됐군.” 알로디는 증오스럽게 그를 비웃었다. “없는 것보다 낫지, 멍청아.”

보이스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돈을 낼 거야. 몇 주 일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지.” 그는 한 손으로 린을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여전히 재갈을 문 채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알로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려는 걸까? 노역소로 팔아 넘기게 될까? 손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보이드는 또 알로디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제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는 배낭을 그녀의 발치로 건어챘다. 짚이 공중에서 나부꼈다. “비단 챙겨. 쓸 만한 건 뭐든 챙겨서 집으로 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알로디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를 막아야만 했다. 한 방 먹여줘야 했다. 어떻게든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피가 더 진했다.

린은 보이스가 그녀를 가게에서 끌고 나가는 동안 알로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알로디는 빈민가를 헤치며 나아갔다. 천천히. 뒤에서. 여러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녀는 추심이 잘 되지 않을 때 거머리를 도우려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린은 거머리가 아니었어. 최소한 평범한 거머리는 아니었지.

난 거머리의 재능을 가족에게 칭찬하지 않았어. 난 그녀를 협상 테이블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거머리 하나가 잘 먹고 잘살게 되어 신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둘은 상류층을 습격하지 않았어. 윈튼과 트루바두르는 내게 아침을 하지 않았지. 나의 밤은 해가 무서워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깊지 않았어.

나는 거머리에게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그리고 그녀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지.

린은 가족과 가깝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알로디가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보이스의 뒤에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기다렸고, 빈민가에 쪽 뺨은 길이 나올 때까지 뭘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집들에 기대어 걸었다. 알로디는 흩어진 길을 사냥꾼이 아닌 유랑자처럼 걸었다. 보이스가 밤의 형상 몇몇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시커먼 무언가를 수레에 싣고 떠났다. 알로디는 간신히 걸음을 재촉했다. 갈 곳이 있는 방랑자.

사촌의 수레가 서쪽과 북쪽의 더러운 자갈길 위로 굴러갔다. 네 명의 실루엣과 수레. 무언가를 선적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들의 저녁은 린보다 더 커질 것이니.

하지만 그들은 부두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적어도 그녀를 썩은습지로 보내지는 않았다.

알로디는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보이스 일행을 쫓았다. 항상 열려있는 화려한 청록 깃발이 휘날리는 북문을 지나 숲길로 들어섰다. 모든 부영이가 울기 시작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녀를 숨겨 줄 빈민가도 없는 어둠 속을 살살 걸었다. 자그마한 점들로 이루어진 햇불들이 그녀를 오솔길에서 벗어나 바다 내음이 사라지고 썩은 땅의 숲으로 인도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몇 분 더 기다린 후, 그녀는 서서히 움직였다. 알로디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 지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승객과 화물을 교환하기 위해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진 솔터우드의 가장 외진 곳에 마차 정류장을 두고 있었다. 알로디는 그곳까지 걸어가 본 적도 몇 번 있었다.

정류장은 나무가 우거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잘 숨겨져 있다. 보이스는 커다란 사육마차 뒤에서 손을 털고 있었고, 다른 마차 두 대는 공터 너머에 있었다. 세 대 모두 평범한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뒤는 열려 있었지만, 내부는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화물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알로디는 말들이 헐떡거리는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 마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알로디는 숲 바닥에 바싹 옹크린 채 벌레와 이끼, 배설물 속에 손을 디었다. 관목과 가시덤불이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보이스와 그의 일행, 호박 머리 라클란과 목이 굵은 다른 둘이 무거운 곤봉과 곤봉의 두배 크기의 횃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그녀 쪽을 향해 두런대고 있었다. 가죽 중 몇 명은 나이프 갱단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고 그녀는 들은 적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했다. 대개 인수인계가 시작되면 나쁜 유머가 나오곤 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올 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미어캣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마치 이곳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듯이.

알로디는 허를 세게 깨물었다. 횃불이 점점 더 다가오자 그녀는 새로운 고통의 전율을 느꼈다. 밤을 밝히기 위해. 덩불 속에 있는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는 보이스에게 눈길을 돌렸다. 말 그대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진한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적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대부분 검은 동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젤리 같았다. 목은 쉽게 부서질 것 같이 얇고 노출되어 있었다. 곤봉이나 날카로운 막대기 심지어 가게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녀는 후회했다.

그가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알로디는 주먹을 꽉 쥐고 무릎을 굽혔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발견한다면, 그녀는 선제 공격이라도 할 셈이었다.

그 다음은? 그녀의 주먹이 뭉개질 것이다. 노역소로 팔려 가게 될 것이다. 보이스의 말이 옳았다. 그녀에게는 본능이 없었다. 단지 흥내만 내고 있었을 뿐이다.

아니면 충분히 새겨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가 그녀를 무시한 채 지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회였다. 본능은 알고 있었다.

알로디는 소리 없이 덩불에 몸을 숨겼다.

일당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숨어있는 알로디를 지나쳐 가버렸다. 횃불이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본능의 일부를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시아에서 사라졌다. 알로디는 숨돌릴 만큼 충분히 그림자에 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정면에서는 세 대의 마차가 삐걱거리며 흙과 흙먼지를 일으키고, 채찍을 휘두르자 말들이 마차를 끌고 나아갔다.

너무 빨리 나가면 가족에게 발각될 수 있다. 하지만 말들이 속도를 낸다면 그녀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

알로디는 보이스 일당이 등을 돌린 채 철수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눈을 떼지 않고 가장 가까운 마차 쪽으로 다가갔다. 말 냄새와 숲의 썩은 악취가 온몸을 뒤덮는 동안 기침을 참을 수 있기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소망하며 숨을 꼭 참았다.

각 마차의 앞쪽에는 마부들이 앉아있었다. 마부는 긴 채찍을 들고 한 쌍의 횃불이 좌석 양옆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채찍을 휘두르며 말들을 부렸다. 휘파람. 고함. 재촉 선두의 말들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본능의 일부를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알로디는 돌진했다. 그녀는 마차 뒤쪽의 계단에 한 발을 걸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배부터 착지했고, 바람이 그녀를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차 내부는 비참함 그 자체였다. 시체들이 서로 얽혀 벽 쪽에 눌러 있었다. 누더기 같은 잿빛 몸통이들은 가쁜 숨을 헐떡이며 쇠기둥에 원숭이처럼 묶여 있었다. 몇몇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발이 부러져 발가락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에는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었다. 대부분 눈을 가리고 있었고, 모두 입에 재갈이 채워져 있었다. 머리통들은 무감각하게 굴러다녔다. 위에서 비치는 작은 불빛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실루엣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알로디를 포함한 한 가족의 대모인 보이스의 어머니는 많은 물건을 나르고 있었다.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알로디는 원치 않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배가 아픈 것때문만이 아니라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마차는 빠르게 움직였다. 앞으로 구르며, 말은 나무가 울창한 북쪽을 향해 달렸다.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바위가 굴러갈 수 없는 길이 나올 것이다.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

알로디는 돌아보는 몸뚱이들의 초점 없는 눈을 피해 정신없이 그들을 살폈다. 그녀는 단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그들은 거머리들이었으리라. 확실한 것은 그녀의 거머리들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울음이 차올랐지만, 본능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목구멍에 걸린 채 응어리졌다.

린은 다른 몸뚱이 둘과 함께 뒤편에 누워있었다. 눈은 감겨 있고, 묶여진 채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 여태껏.

알로디는 웅크린 채 몸을 살짝 일으켰다. “쉿.”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들에게 속삭였다. 숨을 죽이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조하려는 듯 그녀는 자기 몸을 두드렸다.

“나는 그녀를 구해야 해. 그 후에 도와줄게.” 그녀가 이 비참한 사람들을 도울 수나 있을까? 그게 중요한가?

둔탁한 신음이 다시 들렸다. 벽 근처에서 덜덜 떠는 불쌍한 숨소리가 들렸다. 알로디는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이해했는지조차 몰랐다.

그녀는 담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해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마.”

알로디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팔다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느끼며 앞으로 향했다. 마차 앞쪽에 가까워지자 린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안도감이 밀려와 그녀는 비틀거렸다.

린의 눈은 부어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봤을 때 알로디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약에 취하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선적에 늦게 합류한 덕분이리라. 하지만 그녀가 입에 물고 있던 형겅은 가죽 재갈로 바뀌어 있었고, 양손은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었다.

그녀의 손은 흥측하게 보랏빛과 누런빛이 뒤섞인 채 부어올라 있었다.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치료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마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많은 조각이 필요하다.

마차 옆으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스쳐 갔다. 숲은 점점 더 뻑뻑해지고 있었다. 알로디는 조심스럽게 린의 손목에 묶은 밧줄을 풀려고 했다. 그런 다음

마차 밖의 비명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낮은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알로디는 미친 듯이 굽어대는 소리와 목을 찢는 듯한 또 다른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발을 풀고, 재갈을 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칠 것이다.

린의 결박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알로디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엉망진창인 장갑이 그녀의 땀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매듭이 너무 많았다. 낮은 부분도 없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고리 중 하나를 린의 멀쩡한 팔에 감아보려고 했다. 린은 재갈을 물고 킁킁대며 눈을 감고 매 분 고통이 가중되는 공포에 코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마부들의 고탈소리가 들리더니 마차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알로디는 린의 끈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희미한 햇불들이 그들 위로 사라졌다. 누군가 숲 바닥에 착지하며 흙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알로디는 마차 뒤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발자국 소리는 빠르게 앞을 향했고, 말의 고삐가 풀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그들은 쿵쿵대며 소란스럽게 달아났다. 마부들은 뛰어갔다.

마차로 들어오는 이는 없었다. 버려진 것인가?

린은 재갈 밖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녀의 망가진 손에 대한 농담일 것이다. 정말 예쁘지 않아?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충분히 그럴 만 했다.

알로디는 린의 멀쩡한 쪽의 손을 풀어주고 재갈을 풀었다.

“그들은 우리를 운송한 게 아니야.” 린이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린 미끼일 뿐이야.”

알로디는 바깥쪽에서 나무들이 한꺼번에 쪼개지며 내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숲 전체에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를 들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가 허공을 찢었다. 공포의 합창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 시간 같은 1분이 지나갔다. 마차 밖의 비명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낮은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알로디는 미친 듯이 굶어대는 소리와 목을 찢는 듯한 또 다른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본능이 움츠러들었다. 모든 충동이 두려움으로 녹아내렸다. 숨은 타들어 갔다. 그녀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그저 떨기만 할 뿐이었다.

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자신의 발이 묶인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푸는 속도는 쫓아오는 죽음보다 더 느렸다.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느릿느릿 주위를 둘러보거나 밧줄과 땅에 젖은 가죽 끈을 잡아당기며 기둥에서 몸을 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알로디는 마차 중간에 스스로 탄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다. 린은 궁금한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묻고 있었다. 그녀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린은 알로디가 몸을 숙여 발에 묶은 끈 아래로 엄지손가락을 가져갔을 때만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움직였고, 무언가가 흠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가 알로디의 귀에 들어왔다. 알로디는 린의 왼발을 밧줄로 잡아당기며 피부가 찢어지는 것만 생각했다.

객차 앞부분이 반으로 갈라질 때까지.

주변에서 나무 파편이 폭발했다. 알로디는 뒤쪽으로 허우적거리며 린의 멀쩡한 팔을 잡아당겼다.

마차가 기울어졌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 셋이 기둥에서 온몸을 찢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알로디는 먹물투 얼룩진 잇몸과 줄줄이 늘어선 이빨을 얼핏 보았다. 톱니 모양의 검붉은 덩굴은 폐허를 휘젓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알로디는 격한 고통에 그것을 떼어냈고, 그것은 죽을 운명에 처한 다른 한 명을 시야 밖으로 끌고갔다. 알로디는 다른 죄수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린만을 앞으로 끌어당길 뿐이었다. 그들은 마차의 구부러진 등 위로 허겁지겁 뛰쳐나왔다.

린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마비된 다리로 절뚝거리며 어린아이처럼 걸었다. 알로디의 어깨가 통증으로 옥신거렸고, 두 사람 모두 정체를 알 수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알로디는 그녀의 뒤에 세 대의 마차 모두에서 빨갱게 흠뿌려지고 피가 노른자처럼 두껍게 덮힌 잔해를 볼 수 있었다. 끈끈하게 붙어

여전히 타고르고 있는 햇불은 촛불처럼 그 위에 달려있었다.

가족의 제물이었던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있었다. 붉고 탱글탱글한 내장이 마리오네트 줄처럼 널려있었다. 죽었거나 반쯤 죽었거나 죽지 않은 몸뚱이들이 서로의 움직임과 소리에 맞춰 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알로디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본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린을 슬터우드의 그림자 속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당겼다.



홍물이 발톱에 피를 문힌 채 슬터우드로 쫓아왔다. 바닥에 몸을 낮춘 채 속삭이듯 움직였다.

나무들이 달빛을 가려주지만,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 눈은 어둠을 위해 만들어졌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홍물은 몇 시간 전의 잔해에 남아있었다. 끔찍한 상처를 입은 두 시체. 발톱과 송곳니에 찢긴 살점이 남아 있었다. 시체들에 남은 피부는 예전과는 달리 가시가 돋아나 있었다.

시체들은 황토로 얼룩진 흙 위에 놓여 있었다. 둘 다 여전히 그랬다. 그것이 중요했다.

홍물이 시체들을 찢러대더니 그중 하나를 손으로 푼었다. 그것은 물렁거리며 늘렀고, 시체는 나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것 위로 올랐다. 그것이 반복되었다.

시체는 탈구된 턱을 활짝 벌리며 이빨 사이로 썩은 점액을 뿜었다. 마치 죽어가는 벌레처럼 온 힘을 다해 홍물을 향해 몸부림쳤다. 이런 상태에서도 공격은 잔혹했다. 피부를 뚫고 나온 면도날 같은 갈퀴가 홍물의 가족을 긁어냈지만, 더 이상 살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홍물이 뒤틀렸다. 시체는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가만히 쓰러졌다. 눈은 움푹 패여 있었고 온통 붉은 점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모든 광란 속에서도 눈꺼풀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일어나서 달콤한 연기와 썩은 냄새를 지나치던 홍물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홍물의 시선은 동쪽의 뻑뻑한 숲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갔다. 홍물은 흙을 밟고 멈춰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둘 더. 모두 피를 흘리고 있다.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림자가 흉물 주위를 감싸더니 사라졌다.



알로디와 린은 한밤중에 그것을 피해 달아났다. 어둠을 뚫을 수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많은 숲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는 듯했다.

알로디는 양손으로 린을 끌었다. 그리고 본능이 그녀를 끌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갈라진 수풀과 축축하고 사나운 으르렁거림에 시달리며 몇 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달렸다. 알로디의 목에 난 털은 쉬지 않고 서있었다.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몰랐다. 혹은 누구인지조차도.

몇 분마다 그들은 멈춰 서야만 했다. 린은 느렸고 쉬어야만 했다. 알로디가 잡아주기 전에 넘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린의 손에 난 상처에서 손을 감싸고 있던 천을 뚫고 피가 흘렀다.

“사라진 것 같아? 그... 그거 말이야.” 린이 물었다. 그녀는 풀밭에 쓰러져 기척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다.

“그거랑 상관 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해.” 알로디가 말했다.

린은 움찔거리며 임시 봉대를 당겼고 뭐라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정리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스는 훨씬 더 심한 짓을 해왔어.” 알로디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야 돕고 싶어졌어?” 린이 가시나무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지금 나는 여기 있잖아, 아니야?” 알로디도 계속 움직이려 최선을 다하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었다면 말했을거야.”

린은 조용했다.

양보가 최선일 때도 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내가 뭐라도 했다면, 우리 둘 다 죽었을거야.”

린은 어이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악몽에 빠져들었는지 깨닫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알로디에게 더 화가 났을 수도 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라면 돈을 지불하잖아.” 알로디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린은 그녀를 밀어내고 혼자 걷기 시작했다. 당연히 속도는 더 느려졌다.

“틀에 박힌 삶을 산 적이 없으시죠, 알로디 양?” 린이 쏘아붙였다. “몇 달 동안 아무도 뭘스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뒷동네에서 주문을 받으려고 했어. 하지만 일이 더뎠지.”

알로디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끼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망쳤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거야?”

“우리?” 린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 너는 항상 그들 모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 내가 몇 주가 필요한지 왜 신경을 쓰는 거야?”

“안 그랬어.” 알로디는 깨달으며 말했다. 그녀는 싸움을 끝냈다. 린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알로디는 그녀가 이상한 뿌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그들이 다른 손을 가지러 오면 내가 경고해 줄게.”

린은 비참한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농담하지 마.”

알로디는 너무 심했다. 그 일은 아직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농담을 몇 번 더 하기 전까지는.” 린이 웃었다. “청중이 있다면 더 좋겠고.”

숨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천천히 걸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했다. 같은 속도로.



한 시간 동안 추격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다. 숲에는 수런거리는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고, 밤이 깊어지거나 숲이 더 알아지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떨고 있었다.

멀리서 알로디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죽어가는 말 한 마리가 입에 물을 물고 킁킁거리는 소리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말의 배가 벌어진 것이 보였다. 린은 고개를 돌려 멀정한 팔로 얼굴을 가렸다.

알로디는 린을 참나무에 기대게 한 뒤 말이 쓰러진 곳 근처를 수색했다.

그녀는 마부들이 말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말의 눈에 담긴 신뢰를 볼 때면 항상 슬펐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 슬픔을 감출 수 있었다. 마차 옆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햇불과 점화 장치를 들고 돌아와 린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설마...?” 린은 질문을 끝내지 못했다.

알로디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들을 쫓아버려야지, 빨리.

그녀는 마부들이 말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말의 눈에 담긴 신뢰를 볼 때면 항상 슬펐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 슬픔을 감출 수 있었다. 마차 옆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다.

죽어가는 짐승이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를 분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들을 사냥하려던 무언가도 다른 동물을 사냥하려 갈 수도 있다.

그녀는 그들의 길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 린을 데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린이 바라던 남쪽은, 나무가 너무 우거져 별조차 볼 수 없는 곳이었다. 거칠고 젖은 흙이 바위로 바뀌기 시작했고, 화강암 파편이 부츠를 괴롭혔다. 린은 더 자주 넘어지고, 숨이 가빠지며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알로디 역시 몇 번이나 비틀거렸다. 둘은 어둠 속에서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걸었지만, 슬터우드는 조금씩 알아져서 그들은 거의 벽에 부딪힐 뻔했다.

그들은 차갑고 이끼가 낀 바위에 몸을 기대었다. 그들로부터 수십 피트 떨어진 곳에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숨을 수 있는 장소.

안도감이 알로디를 가득 채웠다. 계속 느껴졌던 감시당하는 느낌도 사라졌다.

알로디는 햇불을 마른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점화 장치를 열어둔 채 그 위에 구부정하게 엎드렸다. 그녀는 부싯돌과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엉망진창인 장갑에 부싯기를 불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이것은 그녀가 처음하는 일이 아니었다. 햇불이 불꽃을 터뜨리며 타올랐다.

“지금 농담 아니지?” 린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요구가 아니라 의문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아니길 바랐다.

“쓰러질 때까지 마냥 가자는 거야?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이편이 더 안전한 거야.” 알로디가 말했다. 그녀는 린이 앞으로 향하도록 했다.

그들은 알로디 머리 위로 햇불을 높이 들고 동굴 벽을 따라 길을 찾아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밤 동안 숨어있을 수 있는 트인 공간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에 힘을 내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햇불은 그들의 길잡이였다. 걸으면서 알로디는 햇불이 동굴의 천장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햇불을 높이 들어 빛을 멀리 보내고 싶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해?” 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지금, 그 빈자리는 고통이 매우고 있었다.

알로디는 목이 너무 말라서 대답을 하기 전에 목을 두 번이나 헹기침을 했다. “그것이 우리를 꺼내기 힘들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해. 어딘가 입구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넓은 장소까지 말이야.” 알로디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다음 내가 몇 시간 동안 보초를 서고 있을게. 그럼 너도 좀 쉬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터널을 뒤로하고 계속 갔다. 동굴 벽은 습하고 축축했으며 돌에는 가끔 작은 물방울이 고여 있어 손을 미끄러지게 만들었다. 알로디는 분명히 바닥에서 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겨내야만 했다. 린은 이겨내야만 했다.

그들 뒤에 있는 동굴 벽에 무언가가 굽혔다.

“쉿.” 알로디는 햇불을 들어 최대한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만이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 길은 돌로 갈라졌다.

알로디는 린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린을 거의 밀면서 왼쪽으로 몰았다.

어둠 속의 또 다른 미로. 알로디와 린은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이 거의 팔꿈치로 걷고 있었다는 것을. 동굴은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도끼머리로 돌을 치는 듯한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온몸은 공포로 마비되었다. 알로디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린을 오른쪽 좁은 길로 유도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린은 그녀를 돌아봤다.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녀 가족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알로디는 그들의 사업이 희생자를 만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로디는 이런 일에 사람들을 팔아넘긴다는 것에 어떤 인간적인 정당성도 상상할 수 없었다. 돈 때문에?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혈통적인 의무?

죽어가던 말이 되지 않을 거라 믿었다.

두 사람 모두 구석에 있을 수는 없었다. 알로디는 다른 좁은 길을 택했다.

그녀는 햇불을 최대한 높이 들고 젖은 벽을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햇불을 짊었다. 마차를 찢어 놓은 그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했다.

알로디는 몇 초 동안 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굶히는 듯한 소리도,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것을 발견하거나, 린이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알로디는 햇불을 따라 새로운 길을 따라 걸었다. 벽에 맺힌 물방울이 달라진 것을 발견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햇불보다 더 붉은 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다.

알로디가 벽에서 돌아서자 악마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몸통에서 배꼽처럼 튀어나온 덩굴손. 검고 끈적이는 것으로 뒤덮인 입에는 상어와 같은 이빨로 덮인 송곳니와 수많은 혀가 뽀죽하게 뻗어 있었다.

그 눈은 구덩이 같았고 무자비했지만 무심하지는 않았다. 너무나 예리했고,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한 세기 전이나 고상했을 만한 고급 양단이 허리에 너털너털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보이스의 어머니 집에서 그런 옷을 본 적 있었다. 부모님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옷이었다.

그녀 가족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알로디는 그들의 사업이 희생자를 만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로디는 이런 일에 사람들을 팔아넘긴다는 것에 어떤 인간적인 정당성도 상상할 수 없었다. 돈

때문에?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혈통적인 의무?

알로디는 미친 듯이 햇불로 앞을 찢러댔다. 불은 빛의 무기였다. 그녀는 햇불을 크게 두 번 휘두른 다음, 앞으로 돌진해서 괴물에게 햇불을 들이밀며 최대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것은 불길에 얼굴에 닿아도 비명을 지르거나 반격하지도 않고 그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햇불을 튕겨내고는 이빨로 그녀의 목을 찢었다.

알로디는 연못 바닥에 가라앉는 돌처럼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지만, 숨은 가야할 곳을 잃었다.

알로디는 버려진 햇불 불빛 아래로 린이 반대편에서 절뚝이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괴물이 몸을 돌리며 덩굴 손 두 개를 채찍처럼 내밀자 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덩굴손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것은 먹이를 먹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알로디의 머리는 붉은 점액 웅덩이 속에 놓여있었다. 모든 것이 무감각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둠이 그녀를 차지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먹이가 먹힐 시간이 찾아왔다. 주위가 부산스럽다.

홍물은 마차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숲속으로 소란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서 키가 큰 녀석이 햇불을 사방에 비추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홍물은 먹잇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간의 부의 흔적을 뒤집어쓴 늑은 뱀파이어. 이 영리한 괴물은 왕의 항구 사람들과 사냥감을 공유하며 눈에 띄지 않게 지냈으며, 노예를 거래하고 이를 위해 더 빨리 역병을 퍼뜨렸다.

뱀파이어는 충동에 이끌렸다. 그것은 자제력을 몰랐다. 거부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을 추적했다.

그것은 민첩했다. 그 홍물은 개방된 곳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두 생존자는 동굴로 들어갔다.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다.

동굴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제베디아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매부리코에 구름처럼 희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있었다. 넓고 네모난 얼굴은 평범하고 창백했지만, 저주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붉은 눈은 거미줄처럼 얽힌 검은 핏줄로 둘러싸여 있었다.

제베디아는 복부를 따라 가로로 선명한 진홍색 판금이 새겨진 옛 케잔 궁정에서나 볼 수 있는 장식용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갑옷의 고리에는 사슬에 달린 작은 병이 단단히 매달려 있었고, 그 병에는 그가 혼자서 끌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짐승들에 의해 궁지에 몰린 채 마지막 숨을 거둔 뱀뱀 강에서 온 녹색색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최고의 선이었다.

솔터우드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치고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장비였다. 숲속을 빠르고 조용히 이동하려면 더더욱 피하는 장비였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혈기사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고 일해왔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 어려웠고, 서약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 *나에게 남은 것은 어둠에 짓눌린 삶뿐.*

여정이 불가능해질 때마다 그는 서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고통과 괴리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제베디아는 저주받은 동지들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살이 굶아 썩기 전에 도려냈다. 그 이후의 삶은 괴물과도 같았다. 그것을 마주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음장과 같은 영혼이 필요했다. 결코 꺾이지 않는 영혼 말이다.

제베디아는 밤공기 속에서 죽음의 음절을 속삭였다. 그림자가 안개처럼 그의 주위를 휘감으며 그의 경갑이 돌에 부딪혀 내는 소리를 잠재웠다.

동굴 안의 비명 소리는 잠잠해졌지만, 제베디아는 뱀파이어가 먹이를 먹으며 뼈격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동굴 안으로 서둘러 향했고, 길을 찾는 데에 빛은 필요 없었다.

동굴이 점점 좁아졌고,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통로의 구부러진 곳 근처에서 그는 마침내 뱀파이어가 몸을 낮게 구부린 채 덩굴손으로 희생자 중 한 명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덩굴손은 12개의 칠성장어처럼 그녀의 몸에 붙어있었다.

제베디아는 마차 희생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둘이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뱀파이어를 상대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면,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옳았다. 뱀파이어의 위협을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제베디아는 그의 접근 자체는 은폐할 수 있었지만, 그의 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 뱀파이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다가 별떡 일어나 입 안 가득 뽀족한 혀를 식씩거렸다.

제베디아의 손에서 보랏빛과 검은빛의 단단한 그림자 창이 구현되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창을 던졌다. 뱀파이어가 돌진하기도 전에 창이 단단히 내리꽂히며 뱀파이어의 목을 관통했다. 덩굴손이 솟구치며 차가운 살을 갉아먹는 그림자를 떼어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제베디아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저주로 부상당한 먹잇감을 보고 그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그것을 넘어뜨렸다.

제베디아는 무릎을 구부린 채 장갑을 낀 손에 창을 들고 뱀파이어에게 신중하게 다가갔다. 그는 뱀파이어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피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만 했다. 그는 그것을 찢러 가슴에 빠르게 구멍을 두 개 낸 다음 양손으로 휘두르려고 온 몸에 힘을 주는데—

네 개의 톱니 모양 덩굴손이 제베디아의 목과 팔을 감싸며 살을 갈기갈기 찢었다. 백 개나 되는 뱀파이어의 작은 이빨이 상처를 빨아들이자 불처럼 번져나가는 고통은 그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했다. 뱀파이어의 덩굴손이 수축하자 제베디아의 창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덩굴손은 그의 몸 한가운데로 모였다. 제베디아는 피 웅덩이 속에서 녹아내렸다.

뱀파이어는 잠시 멈춰 쉬 소리를 내며 팔을 휘둘렀다. 덩굴손이 손가락처럼 허공을 찌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만족하지 못한 듯 희생자들의 시체를 향해 돌아섰다.

그 뒤로 진홍색 웅덩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무정형의 몸같은 덩어리가 되었다. 장창이 함께 떠오르더니 제베디아의 손에 쥐어지면서 손가락이 하나씩 형태를 갖췄다. 덩어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면서 제베디아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뱀파이어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다.

제베디아는 괴물을 계속 찌르면서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 개의 구멍. 넷. 다섯. 그 대칭과 검붉은 수액의 완벽한 분출이 그를 덮칠 때, 무언가 황홀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적을 모욕하는 듯한 쾌감을

밝은 머리칼의 여자.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보였다.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본능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잔혹함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을 봤다.

느끼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격을 가했다.

덩굴손이 제베디아의 목에 걸린 증표를 끊어 사슬이 고리에서 풀리기 전까지. 이 뱀파이어는 예전에 혈기사에게 사냥당한 적 있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제베디아는 돌이 부딪히기 몇 초 전 자신의 소중한 증표를 붙잡고 땅에 떨어졌다. 뱀파이어의 팔다리가 그를 감쌌지만 저주가 그를 진정으로 붙잡고 있었다. 제베디아의 피부가 늘어나며 변형했고, 그는 굴복하며 힘과 굶주림 모두에서 뱀파이어에 맞설 수 있는 근육과 핏덩어리로 성장했다.

홍물은 먹잇감을 반으로 찢어 덩굴손과 썩어가는 팔을 뜯어냈다. 손이 되어버린 선명한 피의 발톱으로 그것을 찢어버렸다.

먹잇감은 선혈이 낭자했다. 이리저리 꿈틀거렸다.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했다.

이 가증스러운 홍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휘둘렀다.

제베디아는 개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손은 고통으로 옥신거렸다.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준 수많은 장애 요소 중에서 고통이 그를 가장 명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동굴 벽을 내리쳤고, 너무 세게 내리친 탓에 돌이 30센티미터 깊이로 쪼개졌다.

뱀파이어의 살점 절반이 그 아래에 놓여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사라졌다.

동굴 밖으로 피 묻은 자국이 이어졌다. 그것은 도망쳤다.

그는 쉯 소리를 내며 다시 벽에 부딪히려 몸을 돌렸다. 뱀파이어는 그보다 빨랐고,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뱀파이어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그가 만약 지금 시작한다면, 어쩌면...

바닥에 쓰러진 여자 중 하나가 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였다. 또다시.

똑같이.

그들은 무슨 사이였을까? 자매였을까? 연인,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한

말투를 쓰는 연인?

그는 뱀파이어를 처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저주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의 자제력 부족. 그가 창을 들기 훨씬 전부터 그의 저주는 있었다.

최고의 선은 무엇이었나? 최고의 보상은?

작은 갈색 머리카락의 이 여자는 스틸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기쁨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비록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밝은 머리칼의 여자.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보였다.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본능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잔혹함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을 봤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는 창과 증표를 땅에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로디는 몸을 떨었다. 온몸을 떨었다. 움직이고 싶었고, 사념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팔다리 하나하나가 저절로 움직이게 하고 싶었다. 그녀의 시야는 어둠 속에 묻힌 채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환상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백발의 남자가 아름다운 갑옷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넌 죽게 되겠지.” 그가 잔혹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억양은 어딘가 낯설었고, 말하는 속도는 평범하고도 빨랐다. “그것이 너를 오염시켜 버렸어. 그로 인한 변화는 네가 상상도 못 할 만큼 심하지.”

그는 그녀 위에 녹색색 물로 가득 찬 작은 병을 들고 뚜껑을 열었다. 안개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도 느리게 느껴졌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녀는 고개를 고고하고 싶었다. 단순히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아니면 시간을 줄 수도 있다. 몇 년. 수십 년. 어쩌면 더 오래.”

알로디의 몸은 저 먼 어딘가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너는 단련을 하고 사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목숨을 앗아간 괴물보다 더 비참한 괴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네가 행한 악과 네가 행한 선에 비하면 네 마지막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행한 선. 그녀는 린을 되찾으려고 했고, 실패했다.

다급한 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 생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맹세하라. 네 피에 대고 맹세하라.”

알로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눈빛으로 그에게 답했다.



의식은 서둘러 진행됐다. 작은 병에서 흘러나오는 주문과 의식. 동굴의 어둠이 알로디의 눈동자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가라앉았다. 그녀는 의식이 오락가락한 채 말하며, 들었으며 단편적인 것만 기억할 수 있었다.

서 있다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서 있다. 숨을 쉬었다. 혀로 이를 핥았다. 모두가 정상이었다. 맥박이 느껴졌다. 피는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녀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백발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는 이슬이 고인 작은 웅덩이가 있었다. 알로디는 어둠 속에서도 앞이 잘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목에 난 상처는 흉측하게 꿰매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루비를 통과하는 빛처럼 반짝였다. 무덤의 흙빛을 띠는 작은 핏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고통을 느꼈고,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 가장 먼저 든 욕구는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린은 끌려가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팔은 양옆으로 축 처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가시가 목과 팔의 피부를 찌르고 있었다. 목구멍에서는 짐승과 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알로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약해진 기분이 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이것.” 알로디는 말을 더듬으며 제베디아에게 말했다. “

그녀에게도 해줘. 그래야만 할 거야.”

제베디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진행돼 버렸어. 그녀는 곧 뱀파이어의 노예가 될 것이야. 안타깝군. 너희 중 단 한 명을 위한 시간밖에 없었다.”

알로디에게 남은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선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렇게 약속했다.

“우리... 우리가 뱀파이어를 처치하면,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더 거칠게 들렸다.

제베디아가 끼어들었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멈출 수는 없어.”

알로디는 고통이 느껴졌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쓸데없이 눈물이 새어나왔다.

“왜 나왔지? 왜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제베디아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길일세.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해. 잠시라도 길을 잃어버린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 제베디아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득함이 묻어났다. “너에게는 그 슬픔이 느껴지는군. 적어도 너에게는 기회가 있었어.”

그녀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몸부림치는 린에게 걸어갔다. 린은 말을 듣지 않는 팔과 다리로 알로디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단어조차 아닌 소리를 내뿜으며.

알로디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동공이 빨강계 변하고 퍼지며 흰자위가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린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다.

린의 목에 두른 화려한 푸른색과 금색의 크라바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룩져 있었다. 알로디는 그것을 천천히 풀어 머리 위로 당겨 목에 묶어 상처를 가렸다. 그녀만의 증표였다.

그녀는 제베디아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창을 건네주었다.

알로디는 린의 심장을 향해 창을 겨눴다.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린의 눈에서 신뢰가 보이기를. 다행히도 보이지 않았다.

신뢰.

그녀는 눈을 감고 본능에 맡겼다.

